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사도행전 10:34.37-43	제2독서	콜로새서 3:1-4	복음	요한 20:1-9
--------	------	---------------------	------	---------------	----	-----------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21,16)

찬미 예수님, 지난 1월에 서품을 받은 새사제 김우진 베드로입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주보를 담당하는 신부님에게 새사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며 들었던 생각을 안동교구 신자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제 서품을 준비하며 선택한 서품성구는 요한복음 21장16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입니다. 이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요한 21.16)라고 고백하며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사도처럼 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살고자 선택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마음에 품고 사제생활을 시작한 저는 프랑스로망교구 선교 준비를 위해 본당이 아닌 교구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방문했던 다양한 본당에서 만나는 신자분들은 새사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너무도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요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 사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중에 김옥태 레오 신부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선배 신부님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빈소를 지키고 장례 미사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추모식 때 보았던 레오 신부님의 생전 영전 영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마음과 입술에 머무시어 그대가 복음을 합당하고 충실하게 선포하기를 빕니다.” 치매로 양로원에 계시면서도 매일미사책 안에 있는 미사통상문을 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저의 서품 성구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미사 강론 중 레오 신부님이 ‘참 사제였다’ 고 하신 두봉 주교님의 말씀처럼 저도 먼 훗날 ‘참 사제’ 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청해봅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랑도 받지만 동시에 늘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언제 가십니까?”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아 저도 언제까지 교구청에서 지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는 날만 기다리기보다 남은 시간 동안 가능하다면 아직까지 못 가본 안동교구 내 성당들을 방문해 보고 함께 미사를 드리며 신자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남은 기간 안동교구 새사제로서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4월2일(화)	부활 팔일 축제 화요일	오후7시30분	주일헌금 교무금	\$ 1,160.00 \$ 5,780.00
4월3일(수)	부활 팔일 축제 수요일	오전8시00분	자선비 성소후원	\$ 300.00 \$ 280.00
4월4일(목)	부활 팔일 축제 목요일	저녁7시30분	성물방	\$ 89.00
4월5일(금)	부활 팔일 축제 금요일	저녁7시30분	도네이션	\$ 200.00
4월6일(토)	부활 팔일 축제 토요일	저녁7시30분	합계	\$ 7,809.00
4월7일(주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24명 성인: 177명
교무금 봉헌자	영상보(6-10)김근수(1-9)최범진(4-6)김재홍(1-5)이상인.임채봉.이승렬.조영숙(3-4)장호길(1-4)황원호.엄용덕.김두황(2-3)장수영(1-12)권영일.박원상.김창현(3)김은영.성영진(4)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갓은 고문을 당한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세 시간이나 매달려 있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인데, 왜 그렇게 죄인처럼 당하기만 하셨을까요?

주님은 여러 차례 기회가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수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한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20장9절) 그러나 차츰 그 말씀을 기억해 내고 ‘아! 맞다. 그리 말씀하셨지’ 하며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루카복음 24장 19-21절, 23-26절, 30-31절)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복음 20장 26-29절)

부활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부활은 하느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 죽음을 극복하고 아버지로서의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를 통해 하느님과 친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보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계시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이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 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부활이 바로 오늘입니다.

(가톨릭평화방송 이지혜 기자의 기사와, 가톨릭 굿뉴스에서 참고했습니다.)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생		
연			생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 주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교우들의 가정과 공동체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
일시: 31일(주일) 오전11시 교중미사
오늘 오전9시 미사는 없습니다.

2. 축하합니다
30일(토) 파스카성야미사 중 세례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신 10구역 김이진(스텔라) 자매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3. 부활행사 안내
일시: 31일(주일) 부활대축일 미사후. 친교실 당일 부활특식 제공 및 다채로운 부활 행사가 실내·외에서 진행됩니다. 풍성한 행사와 친교를 위해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문의:양경민 총무)
감사합니다(도네이션)
현금: 김명희(\$100)송돈희(\$100)리노공소(\$200) 이미자(\$100)김도철(\$100)
현물: 이재덕(LG스마트TV 65)

4. 북가주 전신자 음악피정
일시: 4월6일(토) 오전10시-오후3시 (중식제공)
장소: 샌프란시스코 성 마이클 성당
주제: 그리스도의 생애 The life of Christ
주관: 북가주 한인사제 협의회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당일 본당 특전미사는 없습니다.

5. 성소주일(4/21) 특강
일시: 4월7일(주일) 오전 9시(영어),오전11시(한국어)
강사: 마리 조세핀 수녀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6. 양업 토마스 공동체 (리노공소) 미사
일시: 4월14일(주일) 성당에서 오후1시 출발
참여단체: 전례부
리노공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7. 4월 구역미사 (2구역)
일시: 4월12일(금) 오후7시
장소: 윤재경 알베르도. 윤은실 비비안나 (자택)

8 구역장 교육 및 피정
일시: 4월13일(토)
장소 등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합니다.
4월 구역장모임은 교육/피정으로 같음합니다.

9. 4월 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은 없습니다.

10. 4월 구역모임
5구역: 4/28(주일) 교중미사후 친교실
6구역: 4/13(토) 오후5시 임정남 실비아(맥)
7구역: 4/19(금) 저녁미사후 친교실
8구역: 4/21(주일) 교중미사후 요한방
9구역: 4/21(주일) 교중미사후 루카방

11. 단체활동
사회복지부: 4/6(토) 오후3시 식재료준비/모임
4/7(주일) 오전8시반 흥리스봉사

12. Yard Sale (5월11일,토), 도네이션 받습니다.
일시: 4월14일(주일)부터
문의: 김도철 베드로 사목회장

13. 감사합니다
부활음식: 김영숙 요세피나(\$300)
이은로 토마스아퀴나스(\$1,000)
감사헌금: 김상돈 도미닉 부제님 (\$100)
사랑의급식(여성부) 수익금: \$273.-

<< 주일학교 >>

주일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든 부활축하 묵주선물
일시: 31일(주일) 교중미사후 나눠드립니다.

주일학교 부활절 에그헌트
일시: 31일(주일) 오후1시 성당 뒤 잔디밭

청년부 주관 College Career 특강
일시: 4월7일(주일) 오전10시 엘리사벳방
대상: 중고등학생 (6~11학년)

주일학교 피정 캠프 (장소:성당)
주제: “기뻐하고 즐거워 하여라”
기간: 4/20(토) 오후2시~ 4/21(주일) 오전9시
대상: 주일학교 학생 전체 및 학부모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화답송	 <p>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 하세</p>			
전례봉사	주님부활대축일 (3/31)	하느님자비주일 (4/7)	부활 제3주일 (4/14)	부활 제4주일 (4/21)
미사해설	이주연	박문교 / 한삼	오민정 / 김진영	김선식 / 이주연
복 사	김영준 윤지현 최준우 곽유경 송돈희	지마리 황건영 권오승 송돈희	정우영 곽아인 김규철 곽유경	오은수 정준영 김병수 장현철
헌금위원	천상의모후Pr.	셋별Pr.	천상의모후Pr.	셋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파트타임 가능/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916-728-8585
KP market, #411

서은미 부동산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2110 Broadway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HANDMADE SOAP & CANDLES
쉐 줄리아 공방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

박지은 (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된장.도토리 국수.참기름.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